

1) 이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33)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불어 다투거나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와 대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 베풀기를 다짐하며, 그들의 이웃이 되고자 기도합니다.

2) 이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34, 37)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달라 하며 가진 재물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결심되고,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아픈 이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곤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 ..... 인도자

찬송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 570장) ..... 다 같이  
명절 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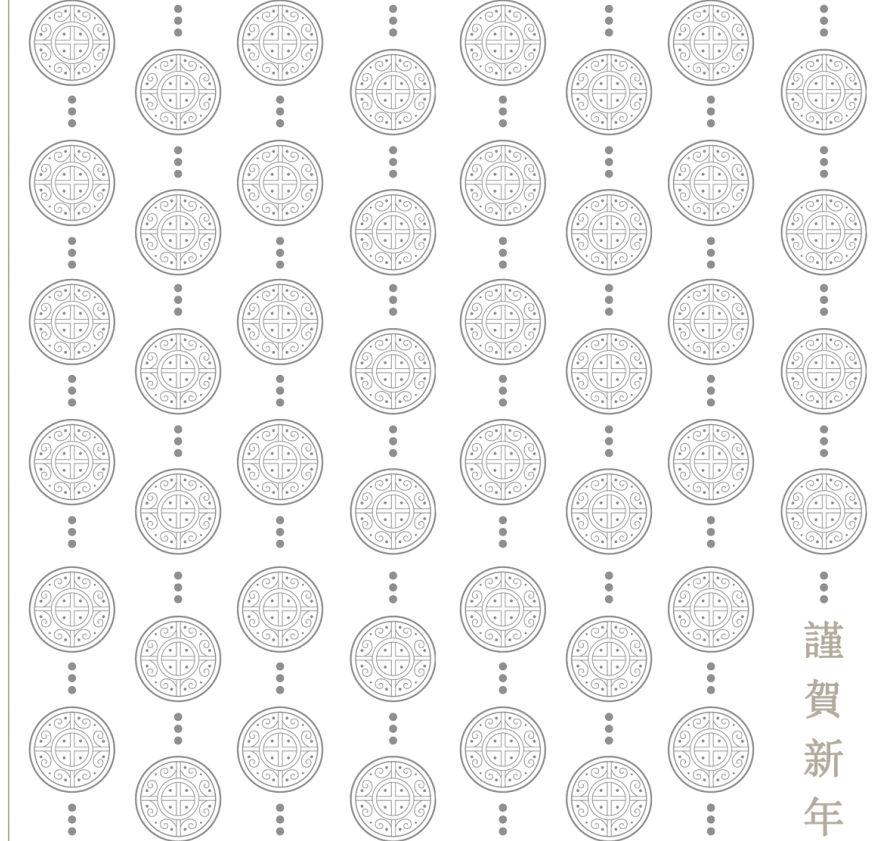
반주 QR

1. 주는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풀밭 맑은시냇 물가로 나를 늘인도 하여 주신다
2. 예쁜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 못된짐승 나를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처 못하리  
나의주님 강한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 찬송을 부르면서 명절 가족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 다 같이



2023 癸卯年  
새해가경예배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59  
032)821-8011~8  
www.hanavision.or.kr

# 설 명 절 가 정 예 배 순 서

## 예 배 초 청 ..... 인 도 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 찬 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 559장) ..... 다 같 이



반주 QR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기 도 ..... 말 은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해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럼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며, 늘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0장 30~37절 ..... 말 은 이

-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설 교 .....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 인 도 자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입니다. 우리가 설날을 보내면서, 한 해의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를 피해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그 곁을 지나가지만 그를 피합니다. 이제 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상처를 싸매어 썰 곳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질문하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